무가당 요구르트 학교급식 추가

임실군, 올해 34개교에 주 3회 유제품 지원… 미래세대 위한 '착한 정책' 호평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사업에 학생들의 건강을 한층 더 챙겨 줄 무가당 요구르트가 추가로 보급된다.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사업에 학생들의 건강을 한층 더 챙겨 줄 무가당 요구르트가 추가로 보급된다.

군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36개교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임실군 50%, 임실치즈농협 50%)을 지원하여 주 2회 유제품 무상급식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지원을 확대하여 34개교에 사업비 2억7,000만원(임실군 60%, 도교육청 40%)을 지원하여 주 3회 유제품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유제품 학교급식 추진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착한 정책'으로 호평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유제품 지원이 이뤄지면서, 기부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부의미를 안겨주고 있다.

군은 성인 다이어트나 혈당 수치 조절, 장 건강 증진에 좋은 무가당 요구르트 확대 보급에 적극 나서며,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유제품 소비 촉진은 물론,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 건강과 지역 낙농업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임실N치즈 유제품을 무상 제공하면서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다 보니 학생도,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무가당 요구르트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시작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급식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참여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청년들과 소통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참여자 대상 사업 설명회·소통 간담회 가져

순창군이 추진 중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이 참여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참여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종자통장 사업의 구조와 혜택, 참여 시 유의사항이 자세히 안내됐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935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35명이 중도 해지한 사례가 있어 △주소지 유지 △근로활동 지속 △매월 적립금 납부 등 기본 참여 조건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2배인 30만 원을 지원, 2년간 적립 시 최소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도 함께해 지역 청년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일 군수는 "이 사업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순창에서 청년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군수는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순창군이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청년 세대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공동체 안에서의 청년 역할을 강조했다.

행사 후에는 청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간담회 시간도 이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일자리, 주거, 정책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구강보건의 날 기념 '건치아동 시상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 9일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치아동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관내 15개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구강검진 심사를 실시한 뒤, 구강위생 상태가 우수한 학생 17명을 '건치아동'으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공공용지 방치 슬레이트 43톤 수거·처리

임실군이 무단 방치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공공용지 방치 폐슬레이트 43톤을 오는 20일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해 신속하게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기존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방치된 슬레이트 수거·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군은 2018년부터 방치 슬레이트 수거·처리 사업에 총 5억 9,000만원을 들여 총 484톤 방치 슬레이트를 수거 처리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통해 하천 및 야산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총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405동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대로 철거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다"며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방향 논의

남원시, 추진 상황 보고회 가져

남원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4년차를 앞두고 실국소장, 공약사업 부서장이 참석, 현재까지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산업 선도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대 분야 41개 공약사업을 수립하고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비전으로 해영을 적극 추진해 왔다.

현재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률은 80%에 달하며,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2025년 목표인 85%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계획 반영과 국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공약사업의 추진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시민이 직접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실행계획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6월 13일부터 7월11일까지 3회에 걸쳐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 모든 공약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평남마을 새뜰마을 준공식 개최

순창군이 10일 적성면 평남마을에서 '평남마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은 주민 중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 마을의 주거환경은 물론 공동체 문화까지 함께 변화시킨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순창군의회의장과 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마을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커팅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평남마을 새뜰마을사업'은 생활 인프라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다. 평남마을은 2021년 대상지로 확정된 후, 총 15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안길 확장 및 침수지 배수 개선 △슬레이트 지붕과 빈집 정비 △노후 담장 및 혐오시설 개선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태양광 설비 구축 △CCTV 및 가로등 설치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을 정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개최

김영태 의장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정례회를 개최해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비롯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18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이 상정되어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남원시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및 지원 조례안 △남원시 쌀값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이번 정례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3일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활동을 거쳐 27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